

종합·해설

“정치인 장관’ 당적 정리 해야”

인도적 지원·경협위 일정 조율

이재정 통일, 北 김영남 위원장 면담

우리당 내부서 제기 “대통령 국정 중립 운영 오해 없게”

北, 쌀·비료지원 입장표명 요구

통합신당모임선 교체 주장 ... 논란 가열될 듯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정치인 장관들도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열린우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장은 1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통령 탈당 이후 장관직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며 “정치인 장관들이 당적을 유지하게 되면 대통령이 탈당해서 국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지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또 “장관을 그만두든, 당적을 정리하든 빨리 선택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총리까지 돌아오는 마당에 장관들이 당적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면 만큼 장관들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당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우리당 당원출신 장관들이 내각에서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권을 버렸다는 말과 안 맞는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당적 정리를 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당내에서는 장관들이 당적 정리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장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당이 맡겨줄부할 문제가 아니라”며 정치인 장관들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대선정국에서 중립적 국정운영이 요구되는데 이미 한명숙 총리가 오는 6일 이후 당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당 출신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도 차제에 탈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장관들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당 의원들의 정치인 장관 탈당요구는 주로 유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친노 그룹의 수장격인 유 장관이 당과의 정치적 연결고

리를 끊어야만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당 탈당과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신당모임은 당적 정리 요구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유시민 장관 등이 당적을 정리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당측의 생각이 이해될 수 있지만, 정치인 장관들은 워낙 정치적 색깔과 배경이 짙은 분들이어서 당적 포기만으로는 중립내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대통령 탈당이 의미 가지려면 정치인 장관들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이 제20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1일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우리측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 5명은 이날 오후 4시 평양 만수대의사당으로 김 상임위원장을 방문했다.

면담은 관례에 따라 방문 측인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호용 내각책임차사 등 북측 대표단도 동행했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가 김 상임위원장을 예방한 것은 2000년 8월 2차 회담 때 박재규 당시 통일장관과 2002년 10월 8차 회담 당시 정세현 통일장관을 이어 세번째다. 다만 2005년 9월 16차 회담과 2006년 4월 18차 회담 때 각각 방북한 정동영, 이종석 당시 통일장관은 김 상임위원장을 면담하지 않았었다.

앞서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전 남북연락관 접촉에서 김 상임위원장을 예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며 “남측 수석대표가 교체되면 관례적으로 김 상임위원



1일 평양 옥류관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권호용 북측 대표단장이 오찬 후 대동강변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을 만나왔다”고 말했다. 남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고려호텔에서 수석대표 단독 접촉 및 수석들을 포함해 양측 대표단 3명씩이 참석하는 접촉을 한 차례씩 가졌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전담 교환한 공동보도문 초안을 토대로 인도적 지원의 추진 방안과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남측은 화상상봉과 이산가족면회소 공사의 경우 즉각 재개하고 대면 상봉을 4월에 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이 달 내에 경협위

를 열자고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경협위 시기로 4월을 선호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특히 쌀과 비료 지원에 대한 남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및 개통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군사당국자 회담의 재개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3·1절 마라톤 축제에서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원희룡 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朴, 5·31선거때 정운찬 전 총장에 서울시장 출마 권유

한나라당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舊) 범여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운찬 당시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총장의 한 지인은 1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난해 3월 정 총장을 만나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 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표도 사람을 보내 비슷한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지인은 “정 전 총장은 출마 제의를 받고 본인은 서울시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서울대 총장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중하게 거절했다”며 “정 전 총장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2년 10월 강남순환도 시고속도로 문제로 서울시와 서울대가 마찰이 생겼을 때 이 전 시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빅3’, 3·1절 3색 행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이른바 ‘빅3’는 1일 제 88주년 3·1절을 맞아 제각각의 행보를 보였다.

이 전 시장과 손 전 지사는 나란히 YTN과 한겨레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지만, 이 전 시장은 이후 시청에서 열린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성우회 등 보수단체 주최 시청 앞 광기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손

전 지사는 곧바로 서대문 형무소를 돌아보며 시민들과 만났다.

반면 박 전 대표는 공식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정책자문단을 비롯해 정치권관계자들과 있던 면담을 갖고 경선을 앞둔 차분한 내실 다지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 전 시장과 손 전 지사는 이날 마라톤 행사에서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통합’을 일목아 지적하며, 관련 공방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이 전 시장은 대화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70,80년대에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 진화에 나선 셈이다.

손 전 지사 역시 “산업화와 민주화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선진화로 통합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르고 반복하는 자체가 낡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정치 잘 아는...” 대통령 발언 진화 나서

“이명박은 정치인... 특정한 겨냥 안해”

李 “대운하는 첨단 IT 응축된 종합예술”

청와대는 1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경영인 출신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대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이른바 ‘경대통령’ 논란확산을 진화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언급이 이 전 시장을 이 전 시장이 지금 경제인이나”라고 반문하고 “정치권에 들어온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은 중간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하지 않았느냐. 대기업 회장

그만둔다가 얼마나 됐느냐”며 노 대통령의 언급에 이 전 시장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통령은 특정 대권주자에 대한 호·불호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그것은 영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금기사항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특정후보를 갈라세우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늘 강조해오던 대화와 타협, 즉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얘기로 봐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의 만찬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며 역시 이 전 시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 전 시장을 겨냥하거나 폄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전 시장이 표방하는 ‘토목’ 건설 콘셉트에 대해서는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도 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한반도 대운하가 21세기 첨단 IT(정보·기술)가 응축된 종합예술이자 과학기술 발전의 결정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말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조해진 캠프 공보팀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적 행복을 실현하는 일에만 전념해왔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7년(上) 제 17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모집요강: 모집기간: 2007년 2월 5일(월)~ 3월 11일(토), 모집대상: 2007년 3월 11일(토) 09:00, 서울·광주·대구·부산, 지원대상: 2007년 3월 11일(토) 09:00, 서울·광주·대구·부산, 모집인원: 1단계 과정(서울) 20명, 2·3단계 과정(서울) 10명, 수업기간: 2007년 3월 16일(토)~2007년 6월 26일(토) (4개월, 15주간), 주일반: 오전반(9시~14시), 오후반(14~19시) → 주 1회 수강, 수강료: 1~4단계 각 30만원, 2·3단계 권입료 10만원 별도

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3-6 호반2차상가 2층 (합동단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종별 및 연수방법

자격종별	연수단계	교육과정	이수시간	모집 및 이수방법
한자·한문지도사	1단계 과정 (20명)	①한자·한문 기초학문(1) ②한자·한문 기초학문(2) ③한자·한문 기초학문(3) ④한자·한문 기초학문(4) ⑤한자·한문 기초학문(5) ⑥한자·한문 기초학문(6)	90시간 (90차시)	일일모집
	2단계 과정 (10명)	①한자·한문 중급학문(1) ②한자·한문 중급학문(2) ③한자·한문 중급학문(3) ④한자·한문 중급학문(4) ⑤한자·한문 중급학문(5) ⑥한자·한문 중급학문(6)	90시간 (90차시)	과제반입
한자·한문지도사	3단계 과정 (10명)	①한자·한문 고급학문(1) ②한자·한문 고급학문(2) ③한자·한문 고급학문(3) ④한자·한문 고급학문(4) ⑤한자·한문 고급학문(5) ⑥한자·한문 고급학문(6)	90시간 (90차시)	과제반입
	4단계 과정 (10명)	①한자·한문 특급학문(1) ②한자·한문 특급학문(2) ③한자·한문 특급학문(3) ④한자·한문 특급학문(4) ⑤한자·한문 특급학문(5) ⑥한자·한문 특급학문(6)	90시간 (90차시)	과제반입

제 7회 전국 한자한문 3·2급 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공고

일시: 2007년 7월 7일(토) 15:00, 장소: 서울·광주·대구·부산, 접수기간: 2007년 5월 28일(수)~6월 18일(수), 응시자격: 국민·군인·동시가능, 응시료: 3급지도사: 1단계 70만원/2급지도사: 1, 2단계 100만원

시행 및 주관: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인준회, 후원: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사)국어고전문학원

광주지역본원 062)971-4747, 972-4747, FAX.973-4747 (010)973-4477, 휴.017-610-9393, 017-609-9393

국비훈련생 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자격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공인중개사(월~토) 교육기간: 3/5~4/30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19:00~22:30 • 토 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 5/5~7/1	민법, 회계학, 관리법규, 관리실무, 사업개론 (•토 14:00~18:00 • 일 10:00~17:00)
주택관리사(월~금) 교육기간: 4/2~6/2	민법, 회계학, 관리법규, 관리실무, 사업개론 (19:00~22:30)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가타사항: 수료후 100% ~ 80% 환급
- 접수처: 훈련사업부 → 훈련수강신청서 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반스노선

- 전남여고: 동남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원81, 518
- 문화전문대학(구 도원): 진원07, 천안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원82, 518, 1187
- 예술의거리 입구: 풍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70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재규 경찰학원 3층 ★ http://www.hdedu.co.kr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 공무원

김종규 행정학 문제풀이 특강

공무원 합격, 쉽고 빠르게!

- ▶ 교정공무원
- ▶ 사회복지
- ▶ 소방공무원
- ▶ 보훈관할직
- ▶ 세무공무원
- ▶ 교육행정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 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3월 2일 첫진도 시작반(주간반, 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현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3월 5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3월 5일(월)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3월 5일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0038

www.kjkimyou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현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3월 5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3월 5일(월)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3월 5일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0038